

조선시대에 간행된 <孟子>의 諸板本에 관한 研究

A Study on Printed Books of *Mèngzǐ* in Choseon Dynasty

안 현 주(Hyeonju Ahn)*

< 목 차 >

- | | |
|-----------------------|----------------------|
| I. 緒論 | IV. 漢文本 <孟子> 諸板本의 系統 |
| II. 漢文本 <孟子> 諸板本의 調査 | V. 結論 |
| III. 漢文本 <孟子> 諸板本의 分析 |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四書>의 하나인 漢文本<孟子> 諸板本에 관한 형태서지적 분석이다.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문본 <孟子> 판본을 조사하여, 그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문본 <孟子> 판본 중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孟子集註大全」 판본의 계통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한문본 <孟子>은 중앙관서와 慶尙監營에서 주로 간행하였고, 시기적으로는 17~19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孟子集註大全」의 경우 명나라 胡廣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복각한 목판본은 '明本覆刻系列'과 조선에서 주조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 중 '丁酉字系列'로 판본의 주요 계통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孟子>의 본문만을 엮은 「孟子大文」과 「孟子正文」이 여러 차례 간행된 것도 특기할만하다.

주제어: 孟子集註大全, 明本覆刻本, 孟子大文, 孟子正文, 元宗字

ABSTRACT

This paper is a bibliographic analysis on printed books of *Mèngzǐ*(孟子) in Choseon Dynas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ooks in many institutes and private collections, *Mèngzǐjìzhù dàquán*(孟子集註大全) was systematically explored, which was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Mèngzǐ*(孟子) in Choseon Dynasty. *Mèngzǐ*(孟子) was published mainly in Kyungki and Kyungsang provinces, and in the period of 17C to 19C. There are two streams of *Mèngzǐjìzhù dàquán*. One is the series of the reprinted edition of Mingbon(明本覆刻) originated from Saseoogyungdaejun(四書五經大全), compiled by Hokwang(湖廣) and colleagues in Ming(明). The second is the series of Chungyuja books(丁酉字本) among movable type books of Choseon(朝鮮活字本), the contents of which being the same as the other stream. Also, *Mèngzǐ dàwén*(孟子大文) and *Mèngzǐ zhèngwén*(孟子正文) are frequently published.

Key Words: *Mèngzǐjìzhù dàquán*(孟子集註大全), the reprinted edition of Myungbon(明本覆刻本) *Mèngzǐ dàwén*(孟子大文) *Mèngzǐ zhèngwén*(孟子正文), Wonjongja(元宗字)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treenbird@hanmail.net)

• 접수일: 2006년 2월 28일 • 최초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緒論

조선은 유학, 즉 朱熹의 성리학의 근본원리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나라이다. 그리하여 조선조에는 유학을 교육 및 관료등용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과 관련된 많은 經籍이 간행 유통되었다. 특히 <四書>는 성리학의 기본 경전이었으므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석 및 圖解작업이 이루어져 활자본과 목판본의 형태로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관서, 서원,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민간출판업자에 의해서까지 끊임없이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論語>와 <大學>, <中庸>의 제판본에 관한 연구¹⁾에 이어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孟子>의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비록 <孟子> 판본의 전래와 수용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되었으나,²⁾ 조선시대에 간행 유통된 <孟子>의 제판본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문본 <孟子> 판본만을 대상으로 각종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기록을 조사하고,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존본 실물들을 조사하여 <孟子書目>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孟子> 판본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들로, 그 구체적인 시기는 世宗때에 명나라에서 수입되어 처음으로 「孟子集註大全」이 간행된 1428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이다.

그리고 板種별로는 필사본을 제외한 활자본과 목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활자본의 범위는 조선시대에 주조한 활자로 찍은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선후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인쇄기로 찍은 新式活字本은 이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孟子>의 全文을 담고 있으면서, 주로 교재용으로 유통된 판본만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물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孟子書目>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되어 현존하는 한문본 <孟子> 판본의 전체적인 현황과 간행시기 및 간행지역을 파악하고, 판본의 세부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한 계통을 밝히고자 한다.

-
- 1)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한문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 24집, (2002).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언해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 26집, (2003).
송일기·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한문본 大學의 諸板本에 관한 研究,”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제 6 권 제 2호(2005).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中庸>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 32집 (2005).
 - 2) 송정숙, “韓國에서 「孟子集註」의 수용과 전개양상.” 書誌學研究, 제 10집 (1994).

Ⅱ. 漢文本〈孟子〉諸板本の 調査

1. 冊板目錄상의 〈孟子〉板本

책판목록의 기록을 통해서, 중앙관서와 지방에서 소장하고 있던 한문본 〈孟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많은 책판목록들 가운데 비교적 작성시기가 분명한 것들을 선정하여³⁾ 여기에 기록된 〈孟子〉 판본들을 정리하고 이를 지역별·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⁴⁾

책판목록상의 〈孟子〉 판본은 크게 지역별로는 경기, 호남, 영남, 북한, 기타지역 등 다섯 개의 지역권으로 나누었으며, 시기별로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⁵⁾

가. 〈孟子〉冊板의 수록현황

현존하는 책판목록들에 수록되어 있는 〈孟子〉 책판들을 다음과 같이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冊板目錄에 나타난 漢文本〈孟子〉의 수록현황

冊板	攷事撮要	攷事撮要	嶺南冊板記	慶尙道冊板	冊板置簿冊	三南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	各道冊板	古冊板有處考	鏤板考	各道冊板
地域	1576	1585	1576 1585	1730	영조	1743	1750	1759	1778	1780	1796	1840
京畿地域	中央官署	孟子	孟子									
	南漢								孟子	孟子	孟子	孟子
	北漢								大全		大全	大全
湖南地域	南原				大全			大全				
	綾城	孟子										
	泰仁											奎璧
嶺南地域	全州	大文				孟子						孟子
	濟州									孟子	大全	
嶺南地域	嶺營			孟子		孟子	孟子	孟子	大全			
	慶州			孟子	大全	孟子						
	山陰		孟子									
	大邱	小全		小全		孟子					小全	孟子
	星州	孟子		孟子							孟子	
	榮川	大文										
	榮州			大文						大文		

3) 윤병태, “韓國의 冊板目錄,” 古印刷文化, 제7집(2000), pp.9-34.

4) 책판목록상에 나타난 서명의 애매함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 점은 〈四書〉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으로, 〈孟子〉의 예를 들면 〈孟子〉는 「孟子集註」인지 「孟子集註大全」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책판목록들간에도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책판목록상의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孟子」, 「孟子集註」, 「孟子集註大全」등을 모두 다른 종류의 책으로 간주하고 표를 작성하였다.

5) 시기를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선사회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크게 구분되며,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야 비로소 언해본 〈孟子〉 판본이 책판목록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北 韓 地 域	寧邊									大全		大全	孟子
	平壤		孟子										
	咸營				孟子		孟子					大全	
其 他	海州		大文										
	林川 寶光寺	大文											

(축약서명 임. 예: 大全 → 孟子集註大全, 大文 → 孟子大文, 小全 → 小全孟子)

(* : 책판목록의 지명은 廣州로 표기되어 있으나, 남한산성이 속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南漢으로 추정함.)

책판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漢文本 〈孟子〉는 총 20개 지역에서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판목록의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 많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孟子〉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존하는 한문본 〈孟子〉들을 조사해 본 결과 임진왜란 이전의 자료는 책판목록상의 기록만큼 많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戰亂 중에 상당수의 책판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진왜란 이전에 「孟子大文」이 전라도 전주, 경상도의 영천과 영주, 황해도의 해주, 충청도의 임천 등 5개 처에 소장된 것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케 하는데, 이는 〈孟子〉의 내용이 〈四書〉 중 가장 길어서, 〈孟子〉의 본문만을 담은 「孟子大文」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책판목록상의 기록으로는 호남지역에서 5개 처와 영남지역의 7개 처에서 〈孟子〉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현존하는 실물은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 〈孟子〉의 開板地別 刊行現況

(1) 경기지역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3개 처에서 〈孟子〉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관서에서 〈孟子〉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곳은 교서관이다. 교서관은 국가적인 출판 전담 부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孟子〉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특성은 〈論語〉와 〈大學〉, 〈中庸〉의 판본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南漢[남한산성]의 開元寺와 北漢[북한산성]의 太古寺 2곳에서 〈孟子〉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 南漢의 永寶閣에서 간행된 「孟子」(1754년 간행)가 규장각(奎章閣 1889)에 소장되어 있다.⁶⁾ 따라서 책판목록 상의 「孟子」는 6행17자본의 목판본으로서, 홍계희의 서문이 있는 판본이다. 또한 ‘병신삼월북한성개간’(丙申三月北漢城開刊)(원광대 148.2×816스)과 ‘임술초추북한중간’(壬戌初秋北漢重刊)(규장각 7683)이라는 간기를 가진 「中庸章句大全」

6)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易本義」(奎章 986)의 標題紙에 “崇禎三甲戌(1754)奉教新刊三經〈四書〉”라는 간기가 있다.

이 현존하나. 北漢에서 간행한 「孟子集註大全」은 현존하는 실물을 아직 찾지 못 하였다.

(2) 호남지역

호남지역에서는 5개 처에서 〈孟子〉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2곳, 임진왜란 이후에 3곳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존하는 판본은 4종으로서, 1618년 이전 전라도관찰사 이경전 등이 펴낸 목판본 「孟子集註大全」과 “歲在丁卯豐沛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孟子集註大全」, 전주의 昌南書館에서 후쇄본으로 간행된 「孟子集註大全」, 태인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孟子奎璧」이 있다.

책판목록 상에서 전주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孟子大文」을, 임진왜란 이후에는 「孟子」의 책판을 소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존하는 판본은 「孟子集註大全」이 있다. 「孟子大文」은 戰火로 소실되었다고 추정하고, 책판목록 상의 「孟子」는 「孟子集註大全」임을 현존하는 판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책판목록의 작성자가 「孟子集註大全」을 통일서명인 〈孟子〉로 채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四書〉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또한 濟州에서도 2종의 〈孟子〉판본이 간행되었음을 책판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孟子」은 「古冊版有處攷」, 「耽羅志」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간행시기를 1653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孟子大全」은 「鏤板考」에 기록되어 있어서 1796년 이전으로 추정한다.⁷⁾ 그러나 제주도에서 간행한 판본은 아직 실물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3) 영남지역

영남지역에서는 7개 처에서 〈孟子〉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5곳, 임진왜란 이후에 5곳에서 책판을 소장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으로서 현존하는 것들은 6종으로, 1600년에 경주부에서 목활자로 찍은 「孟子大文」과,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孟子集註大全」 4종, 재전당서포에서 후쇄본으로 간행된 「孟子集註大全」 등이 있다. 현존하는 嶺營本 4종의 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乙丑四月嶺營重刊
- ② 甲申新刊嶺營藏板
- ③ 丁巳正月嶺營重刊
- ④ 戊午五月嶺營重刊

(4) 북한지역

북한지역에서는 4개 처에서 〈孟子〉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책판목록상 임진왜란 이전에 평양과 해주에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문헌의 기록에서는 평양에서 「孟子」가 간행되었다고 하

7) 남권희,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청주고인쇄박물관, p.234.

였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평양에서 간행된 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임진왜란 이후 1601년에 간행된 목판본 「孟子大文」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孟子大文」은 책판목록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책판목록 상 임진왜란 이후에 영변에서 「孟子集註大全」과 「孟子」를, 咸營에서는 「孟子」와 「孟子集註大全」을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영변의 “乙丑四月寧邊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목판본 「孟子集註大全」이 현존하고, “咸鏡道觀察使…權縉”序文이 있는 목판본 「孟子大文」이 현존하고 있다. 책판목록 상의 서명과 현존하는 판본의 서명을 살펴 볼 때, 목록의 편찬자에 따라서, 동일한 판본을 때로는 통일서명으로서의 〈孟子〉를, 때로는 「孟子集註大全」 또는 「孟子大文」으로 표기를 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지역

앞서 언급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孟子〉 책판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도의 임천 보광사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孟子大文」의 책판을 소장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책판목록의 기록을 통해서 한문본 〈孟子〉의 소장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비교적 여러 곳에서 〈孟子〉를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들은 전해지지 않고,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록의 편찬자에 따라 서명을 달리 표기하여서, 책판목록의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2. 현존본 漢文本 〈孟子〉의 판본 현황

한문본 〈孟子〉는 서명별로 「孟子」, 「孟子集註」, 「孟子大文」, 「孟子集註大全」, 「孟子奎壁」, 「孟子大文」, 「孟子正文」 등 7종의 판본이 현존하고 있으며,⁸⁾ 동일 서명 아래에서도 판식이 다른 것들을 구분하면 총 種數는 48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판본을 판종별, 간행사항별, 판식의 특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구분된다.⁹⁾

8) 서명(권두서명)으로 분류하면 8종이 되나, 내용상으로는 3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즉 주희가 集註한 「孟子」, 「孟子集註」, 「孟子大文」, 호광 등이 편찬한 「孟子集註大全」 〈孟子〉의 본문만을 담은 「孟子大文」과 「孟子正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표를 작성한 기준은 먼저 서명별로 구분하였고, 동일서명 아래에서는 판식의 구분이 쉽게 되는 행자수를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표 2〉 한문본 〈孟子〉 板本の 調査現況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板式의 特徵			
				邊欄	半廓(cm)	行字數	魚尾
孟子	木板本	南漢: 永寶閣	1754	雙邊	23.6×17.0	6/17	上二葉花紋
	木板本		임란이전	雙邊	22.1×15.1	8/14	黑口, 下向黑
	木板本			雙邊	21.9×15.3	8/14	上二葉花紋
	再鑄整理字	校書館	[19c末]	單邊	20.2×13.5	9/17	上黑
	木板本	武橋	[1874]	單邊	16.0×13.5	10/22	上二葉花紋
	後刷本(武橋本)	新舊書林	1913	單邊	16.3×13.4	10/22	上二葉花紋
	木板本			單邊	20.4×13.8	11/21	二葉花紋
孟子集註	木板本			單邊	22.7×14.8	11/24	二-三葉花紋
	初鑄甲寅字	[校書館]	1546-1591	雙邊	26.1×16.8	10/18	三葉花紋
孟子大全	訓練都監字	訓練都監	[17c초]	雙邊	23.7×17.0	10/17	三葉花紋
	木板本	咸興府	1613-1623	單邊	23.7×17.4	11/24	黑
奎壁	木板本	全州府	1615序	單邊	24.7×17.2	11/24	黑
	木板本	[泰仁]	[1808]	單邊	12.2×10.4	10/22	無
孟子集註大全	初鑄甲寅字	[校書館]	[중종초]	雙邊	20.0×16.8	10/17	花紋
	戊申字	校書館	[1694]	雙邊	25.6×17.0	10/17	二葉花紋
	戊申字	校書館	[영조초]	單邊	24.4×16.8	10/17	二葉花紋
	丁酉字	校書館	1793	單邊	24.8×16.8	10/18	上二葉花紋
	木板本	內閣	1820	單邊	24.5×18.4	10/18	上二葉花紋
	木板本	嶺營	1824	單邊	23.6×16.6	10/18	上二葉花紋
	木板本(후쇄)	光東書局 匯東書館	1918	單邊	24.3×17.0	10/18	上二葉花紋
	木板本(후쇄)	在田堂書鋪	1913	單邊	23.3×17.8	10/18	上二葉花紋
	木板本			單邊	21.7×16.4	10/19	黑
	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初]	左右 雙邊	21.9×13.5	10/20	上二葉花紋
	木活字本			單邊	23.7×17.1	10/22	上二葉花紋
	木板本		[임란이전]	雙邊	22.2×16.7	10/22	黑口, 黑
	木板本	成均館	1686	雙邊	24.5×17.9	10/22	二葉花紋
	木板本	泰東書舍		雙邊	23.6×18.4	10/22	二葉花紋
	木板本	嶺營	[1745]	雙邊	23.5×18.5	10/22	二葉花紋
	木板本	豊沛	1807	雙邊	23.6×18.5	10/22	二葉花紋
	木板本(後刷)	匯東書館	1916	雙邊	23.8×19.0	10/22	二葉花紋
	木板本			雙邊	19.5×16.9	10/22	二葉花紋
	木板本	寧邊府	[1745]	單邊	24.5×19.0	10/22	二葉花紋
	木板本	嶺營	[1857]	雙邊	23.9×18.3	10/22	二葉花紋
	木板本	嶺營	[1798]	雙邊	23.0×18.3	10/22	二葉花紋
	木板本(後刷)	昌南書館	1916	雙邊	24.3×19.5	10/22	二葉花紋
	木板本			雙邊	23.3×18.2	10/22	上二葉花紋
木板本	新舊書林	1913	單邊	20.5×12.0	12/24	上二葉花紋	
孟子大文	木板本			單邊	20.4×14.0	8/17	黑口, 黑魚尾(不同)
	戊申字	校書館	[1695]	雙邊	24.4×16.7	10/17	三葉花紋
	訓練都監字	訓練都監	[17c初]	雙邊	23.9×17.5	10/17	三葉花紋
	木活字	慶州府	1600	雙邊	25.8×16.3	10/18	二葉花紋
	元宗字	校書館	1693	雙邊	25.8×17.2	10/18	大黑口, 3엽화문
	木板本	平壤	1601	單邊	25.5×16.8	10/19	大黑口, 혼입화문
	木活字			單邊	22.8×15.3	11/22	二葉花紋

孟子正文	木板本			單邊	19.7×14.9	9/18	二葉花紋
	壬辰字	芸香閣	1775	單邊	25.1×17.1	10/18	上二葉花紋魚尾
	壬辰字覆刻	內閣	1820	單邊	24.9×17.2	10/18	上二葉花紋魚尾
	後期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初]	雙邊	21.3×13.7	10/20	上白魚尾

Ⅲ. 漢文本〈孟子〉諸板本の分析

1. 刊行地域別 分析

현존하는 한문본 〈孟子〉 판본의 간행지역을 경기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북한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경기지역

조선시대에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한문본 〈孟子〉는 모두 22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孟子〉 판본이 이 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서명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경기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孟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數
孟子	木板本	南漢:永寶閣	1754	雙邊	6/17
	再鑄整理字	校書館	[19c末]	單邊	9/17
	木板本	武橋	[1874]	單邊	10/22
	武橋本	新舊書林	1913	單邊	10/22
孟子集註	初鑄甲寅字	[校書館]	1546-1591	雙邊	10/18
	訓鍊都監字	訓鍊都監	[17c초]	雙邊	10/17
孟子集註大全	初鑄甲寅字	[校書館]	[중종연간]	雙邊	10/17
	戊申字	校書館	[1694]	雙邊	10/17
	戊申字	校書館	[영조연간]	單邊	10/17
	丁酉字	校書館	1793	單邊	10/18
	木板本	內閣	1820	單邊	10/18
	木板本	光東書局 匯東書館	1918	單邊	10/18
	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初]	左右雙邊	10/20
	木板本(明本覆刻)	成均館	1686	雙邊	10/22
	木板本	匯東書館	1916	雙邊	10/22
	木板本	新舊書林	1913	單邊	12/24
孟子大文	戊申字	校書館	[1695]	雙邊	10/17
	訓鍊都監字	訓鍊都監	[17c초]	雙邊	10/17
	元宗字	校書館	[1693]	雙邊	10/18
孟子正文	壬辰字	芸香閣	1775	單邊	10/18
	壬辰字覆刻	內閣	1820	單邊	10/18
	後期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初]	雙邊	10/20

위의 〈표 3〉에서 살펴보면 「孟子集註大全」이 10종으로 가장 많이 간행되었으며, 〈孟子〉의 본문만을 담은 「孟子大文」과 「孟子正文」이 합하여 6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한문본 〈孟子〉 판본의 대부분은 한문본 〈大學〉, 〈論語〉, 〈中庸〉 판본과 마찬가지로, 출판을 권장했던 중앙관서인 교서관, 운향각, 내각, 훈련도감 등에서 간행되었다. 따라서 활자본이 13종이나 간행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활자본이 많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 원종자로 간행된 「孟子大文」은 특기할만하다. 다른 활자로 간행된 간본들은孟子 뿐 아니라 대부분 〈四書〉가 함께 간행되었으나, 원종자로 찍은 것은 〈四書〉 중 「孟子大文」과 「孟子諺解」뿐이다. 元宗字는 인조의 아버지 元宗(1580-1619)이 쓴 글자를 字本으로 주조한 금속활자로, 한글활자도 함께 주조되었다. 「板堂考」에 “孟子眞書字 5,594字, 諺書字 4,605字”이라는 기록이 있어,¹⁰⁾ 鑄字의 규모를 엿볼 수 있고, 활자의 개수가 소량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 책을 간인하기 보다는 특정한 책을 간인하기 위해 주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 「孟子諺解」(奎173)에는 표지서명이 「御筆孟子諺解」로 되어 있고, 跋文에 “御製御筆元宗大王御書孟子諺解…歲在癸酉(1693)孟夏之月”로 되어 있고, 「承政院日記」의 기록¹¹⁾에 원종자본 「孟子諺解」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孟子諺解」의 간기는 1693년으로 확정할 수 있으나,¹²⁾ 「孟子大文」에 관련된 기록이나 문헌은 아직 찾지 못 하였지만, 「孟子諺解」와 함께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孟子大文」의 간행시기를 1693년경으로 추정하였다.

그 밖에 成均館, 南漢, 방각본 간행처였던 武橋, 光東書局, 匯東書館, 新舊書林에서도 〈孟子〉를 간행하였다. 성균관에서 간행한 판본이 1종 현존하고 있으나, 기록상으로는 庚戌年의 刊記가 있는 1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¹³⁾ 또한 〈中庸〉의 경우 北漢에서 간행된 판본이 2종이 현존하는데, 鏤板考에 北漢의 太古寺에서 「四書三經」과 인쇄본을 판각하였던 기록이 있으므로 〈孟子〉의 판본을 비록 찾지 못 하였지만, 간행되었으리라 추측한다.¹⁴⁾

또한 6행17字의 판식을 가진 목판본으로서 南漢의 永寶閣에서 1754년에 간행된 「孟子」가 있다. 이 「孟子」의 판본에 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四書三經」을 함께 간행하였는데 「周易本義」(奎986)의 첫 장 인쪽에 大字로 「四書三經」이라 쓰고, 小字로 “崇禎三甲戌奉教新刊”, “南漢永寶閣藏板”이라는 간기가 적혀 있어서 1754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교에서 袖珍本으로 간행한 「孟子」의 간행 시기는 다른 〈四書〉와 같이 추정하였고, 일제강점기에 光東書局과 匯東書

10) 「板堂考」 書物同好會會報, 11호(昭和 16), p.4.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p.316. 에서 재인용)

11) 「承政院日記」, 肅宗19年(1693) 10月 3日

12) 옥영정,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 32집 (2005), pp.377-378.

13)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pp.152-153.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中庸〉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 32집 (2005), p.190.

14) 상계서, p.190.

館에서 동시에 10행18字的 內閣藏板의 후쇄본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고, 新舊書林에서 「孟子」와 「孟子集註大全」을 각1종씩 간행하였다. 新舊書林 간행의 「孟子」는 무교에서 간행했던 「孟子」의 후쇄본인데, 표지서명은 「孟子大全」이고 권두서명은 「孟子」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孟子集註大全」이다.¹⁵⁾ 新舊書林에서 간행한 또 다른 1종은 12행24字的 목판본 「孟子集註大全」이다.

나. 영남지역

영남지역에서는 6종의 한문본 〈孟子〉 판본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영남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數
孟子集註大全	木板本	嶺營	1824	單邊	10/18
	木板本(後刷)	在田堂書鋪	1913	單邊	10/18
	木板本(明本覆刻)	嶺營	[1745]	雙邊	10/22
	木板本(明本覆刻)	嶺營	[1798]	雙邊	10/22
	木板本(明本覆刻)	嶺營	[1857]	雙邊	10/22
孟子大文	木活字	慶州府	1600	雙邊	10/18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孟子〉 판본은 「孟子集註大全」 5종과 「孟子大文」 1종이 현존한다. 4종이 경상감영에서 간행되었고, 시기적으로는 주로 18세기 이후로 추정된다.¹⁶⁾ 이미 〈中庸〉 板本の 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경상감영의 간행본들이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약 20여년을 주기로 계속 새겨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기존의 판을 누가적으로 보충하여 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판본들에 비하여 유달리 마모된 판이 많다.¹⁷⁾ 嶺營本은 「論語集註大全」 5종, 「大學章句大全」 5종, 「中庸章句大全」 6종이 현존하나 「孟子集註大全」은 4종이 전해지고 있어서 〈四書〉의 수요는 항상 있었으나, 「孟子集註大全」은 14권 7책으로 그 분량이 〈四書〉중 가장 많아서, 가장 드물게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慶州府에서 木活字로 간행된 「孟子大文」이 1종 현존하는데, 계명대 소장본(이귀180.84孟子대 2)에는 “萬曆28年庚子取廬江書院活字印出于鷄林府”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600년

15) 이 논문에서는 권두서명을 서명으로 채기하였기 때문에, 내용상 「孟子集註大全」이지만 권두서명인 「孟子」를 서명으로 서문에 작성하였다.
 16)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에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5권, 제4호(2004), pp.206-208.
 조정화, “조선조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 研究, 제 2집(1987), pp.302-303.
 17)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慶尙監營 의 綜合的 研究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pp.293-305.

에 廬江書院에서 활자를 만들어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호남지역

호남지역에서는 4종의 <孟子> 판본이 현존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호남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數
孟子集註大全	木板本(明本覆刻)	豐沛	1807	雙邊	10/22
	木板本(後刷本)	昌南書館	1916	雙邊	10/22
孟子奎壁	木板本	[泰仁]	[1808]	單邊	10/22
孟子大全	木板本	全州府	1615序	單邊	11/24

호남지역에서는 「孟子集註大全」 2종과 「孟子大全」 1종, 「규벽」 1종이 간행되었다. 4종 모두 목판본이고, 시기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들만이 현전하고 있다. 豐沛에서 간행된 「孟子集註大全」은 방각본으로서, 10행22字的 판식을 가진 명본의 복각본이고, 1916년에 전주의 昌南書館에서는 이 풍패본을 후쇄하였다. 풍패는 왕의 출생지를 가리키는 곳으로서 조선의 시조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으므로, 전주의 일부분의 옛 지명이다.

11행24字的 「孟子大全」(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1239-119)의 末尾에는 간행에 관여했던 宋世英, 梁貴生, 權澍(全州府判官), 李善復(全州府尹), 李慶全(全羅道觀察使) 등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경전(1567-1644)은 1608년부터 1618년(광해군10년)까지 충청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고, 규장각 소장본(일사 古 181.1 M268a v1-7)도 동일한 판본인데 이 판본의 서문에 “萬曆乙卯(1615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간기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에는 서명이 「孟子集註大全」으로 되어 있으나, 권두서명이 「孟子大全」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孟子集註大全」과 다르다.¹⁸⁾ 규장각의 목록에는 서명이 「孟子」로 수록되어 있다. 동일한 판본이 도서관마다 다른 서명으로 목록되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판본을 권두서명인 「孟子大全」으로 서명에 작성하였다.

「孟子奎壁」은 1840년(헌종 6년)에 편찬된 「各道冊板目錄」의 泰仁 편에 ‘「四書奎壁」十六冊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 규벽본 “禮記” 책 15의 말미에는 ‘戊辰夏開刊이란 간기가 기재되어있어 1808년 무진년에 개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북한지역

북한지역에서는 3종의 <孟子> 판본이 현존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18) 「孟子集註大全」은 명나라 영락연간에 한림원 학사 호광 등이 편찬한 것이고, 「孟子大全」은 「孟子集註大全」의 小註(쌍행으로 되어 있음)가 생략되어 있다

〈표 6〉 北韓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數
孟子大全	木板本	咸興府	[1613-1623]	單邊	11/24
孟子集註大全	木板本明本覆刻	寧邊府	[1745]	單邊	10/22
孟子大文	木板本	平壤	1601	單邊	10/19

북한지역에서는 咸興府에서 「孟子大全」, 영변부에서 「孟子集註大全」, 평양에서 「孟子大文」을 간행하였다. 咸興府의 「孟子大全」(奎中 856)은 全州府에서 간행한 「孟子大全」과 마찬가지로 11행24字的 목판본이고, 卷末에 “咸鏡道觀察使…權縉” 이라고 적혀있다. 간행시기 또한 全州府에서 간행한 시기와 비슷하다. 權縉(1572-1624)이 1613년부터 1623년까지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간행연대로 추정하였다.

鏤板考에 관북관찰영장판으로서 「孟子大全」 14권이 있는데 「四書三經大全」을 모두 간행했던 기록이 있다. 영변부에서는 「孟子集註大全」이 간행되었는데, 명본의 복각본으로서 10행 22字의 판식이다. 누판고에 영변부장판 「사서삼경대전」이 모두 간행된 기록이 있다. 이 부분에서도 유의해야 할 것은 관북관찰영장판의 「孟子大全」과 영변부장판의 「孟子集註大全」은 내용이 다른 판본인데 鏤板考에 수록된 서명은 모두 「孟子大全」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양에서는 「孟子大文」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권말에 “萬曆辛丑(1601)…崔岵”이라고 적혀 있어 1601년에 최립(1539-1612)이 간행에 관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립은 1594년 주청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595년 판결사(判決事) 등을 거쳐 형조참판에 이르러 사직, 평양에 은거했다.

이상으로 간행지역별로 한문본 〈孟子〉 판본을 살펴보았는데, 한문본 〈論語〉, 〈大學〉, 〈中庸〉 판본과 마찬가지로, 〈孟子〉 판본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고, 그 다음으로 영남지역에서 〈孟子〉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孟子〉 판본의 대부분은 출판을 담당하던 중앙관서에서 인출되었고,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孟子〉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한문본 〈論語〉, 〈大學〉, 〈中庸〉 판본과는 달리 경기지역과 영남지역, 북한지역에서 「孟子大文」의 간행이 두드러지는데, 〈孟子〉의 내용이 다른 〈四書〉에 비해 방대하기 때문에 「孟子大文」의 수요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刊行時期別 分析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孟子〉 판본을 그 간행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기는 크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일제강점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들은 다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가. 임진왜란 이전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고 현존하는 한문본 <孟子>는 4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을 서명별로 구분하고, 간행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漢文本 <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	板心
孟子集註大全	初鑄甲寅字	[校書館]	[중종조] (1506-1544)	雙邊	10/17	三葉花紋
	木板本 (明本覆刻)		[임란이전]	雙邊	10/22	黑口, 內向黑
孟子集註	初鑄甲寅字	[校書館]	[1546-1591]	雙邊	10/18	三葉花紋
孟子	木板本		[임란이전]	雙邊	8/14	黑口, 下向黑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은 4종인데, 초주갑인자본 2종과 목판본 2종이 현전한다

10행17字的 初鑄甲寅字本 「孟子集註大全」은 그 魚尾가 上下三葉花紋魚尾로서, 초주갑인자본의 말기에 해당하는 판본으로 여겨지며, 고려대목록(화산 貴165)에서는 中宗朝(1506-1544)간본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중종 37년에 「四書三經」을 다량 印出하여 평안도와 황해도에 광포케 하였다는 기록¹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연대로 확정짓기에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목판본 「孟子集註大全」(고려대 만송 A1R3)은 10행 22字로서, 黑口, 內向黑魚尾로 되어 있고, 구두점이 찍혀 있어서 明本의 복사본이며, 시기적으로는 임란이전으로 추정한다.

10행18字的 「孟子集註」는 고려대 만송문고(貴 165A 6)에 소장되어 있으며,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초주갑인자의 말기에 해당하며, 재주갑인자를 주조하기 전까지인 명종-선조초로 그 간행시기를 추정한다.

목판본 「孟子」(성암문고 1-259)는 8행14자이고, 黑口, 下向黑魚尾로 되어 있는데, 桐江 嚴惺(1575-1628)과 雲谷 李光佐(1674-1740)의 장서인이 있다. 형태적 특징과 소장자의 생존연대로 간행시기를 壬亂以前으로 추정하였다.

나. 임진왜란 이후

(1) 17세기 판본

17세기에 간행된 한문본<孟子>는 모두 10종으로, 「孟子集註大全」 2종, 「孟子大文」 5종, 「孟子集註」 1종, 「孟子大全」 2종이 현존하고 있다. 이를 서명별로 구분하고, 간행시기순으로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19) 「中宗實錄」 卷九八 中宗三十七年四月乙卯

〈표 8〉 17세기에 간행된 漢文本〈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	板心	비고
孟子大文	木活字	慶州府	1600	雙邊	10/18	二葉花紋	萬曆28年庚子取廬江書院活字印出于鷄林府
	木板本	平壤	1601	單邊	10/19	大黑口, 혼입화문	萬曆辛丑(1601).....崔 崧
	訓練都監字	訓練都監	[1627]	雙邊	10/17	三葉花紋	「書傳大全」에 장서기가 있음
	戊申字	校書館	[1675년 이전]	雙邊	10/17	三葉花紋	김좌명수택본
孟子大全	元宗字	校書館	[1693]	雙邊	10/18	大黑口, 3엽화문	孟子諺解에 內賜記가 있음
	木板本	咸興府	1613-1623	單邊	11/24	黑	卷末:咸鏡道觀察使...權縉
孟子集註	木板本	全州府	1615序	單邊	11/24	黑	跋:全羅觀察使 李慶全
孟子集註	訓練都監字	訓練都監	[1627]	雙邊	10/17	三葉花紋	「書傳大全」에 장서기가 있음
孟子集註大全	木板本 明本覆刻	成均館	1686	雙邊	10/22	二葉花紋	丙寅四月日成均館重刊
	戊申字	校書館	[1694]	雙邊	10/17	二葉花紋	內賜記

17세기는 임진왜란이후,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이고, 서학과 천주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으며, 성리학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전란으로 소실된 서적을 보충하고, 성리학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경서가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 간행되어 현전하는 한문본 〈孟子〉는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목판본 등이 있는데, 목활자본은 훈련도감에서 간행된 「孟子大文」과 「孟子集註」가 있으며, 경주의 廬江書院에서 목활자로 인출한 「孟子大文」이 있고, 금속활자본은 원종자로 찍은 「孟子大文」과 무신자로 찍은 「孟子集註大全」과 「孟子大文」이 현존하며, 목판본은 평양의 「孟子大文」, 咸興府의 「孟子大全」, 全州府의 「孟子大全」, 성균관에서 重刊한 「孟子集註大全」이 있다.

먼저 「孟子大文」에 대해 살펴보면, 계림부에서 목활자본으로 인출된 “萬曆28年(1600년) 庚子取廬江書院活字印出于鷄林府”의 간기가 있는 「孟子大文」이 계명대(이귀180.84孟子대口-2)에 소장되어 있고, 형태적 특징은 10행18字이며, 2엽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1601년 평양에서 간행된 목판본 「孟子大文」은 “萬曆辛丑(1601)…崔崧”이라는 간기가 있고, 형태적 특징은 10행19字이며, 大黑口와 혼입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훈련도감자로 찍은 「孟子大文」은 형태적 특징이 10행17字, 3엽화문어미, 四周雙邊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훈련도감자본의 「書傳大全」에는 1627년의 장서기²⁰⁾와 실록의 기록²¹⁾이 있어 「孟子大文」도 이 무렵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신자로 찍은 〈四書〉는 2가지 판본이 존재하는데 변란이 쌍변인 것과 단변인 것으로 나뉜다. 쌍변으로 된 판본이 시기적으로 이른 것인데, 활자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

20) 奎宗227 : 天啓七年(1627년)...太白山史庫上, 奎宗882의1 : 天啓七年...茂朱史庫上

奎宗882의2 : 天啓七年...春秋館上, 奎宗882의3 : 天啓七年...江華史庫上... 그 외 다수 있음

21) 「仁祖實錄」卷一九, 六年十二月 壬辰, 에 “전국에 詩·書·四書 등 各件 共三十六冊을 보냈으며.....”라는 기록이 있음.

에 인쇄의 상태가 정연하고, 단변으로 된 판본은 활자의 마모가 심해 補字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산기문고 소장본(1-160) 「孟子大文」에는 김좌명(1619-1675)의 장서인이 찍혀 있고 변란이 쌍변으로 되어 있어서, 무신자 초기본으로 추정하고 1675년 이전으로 간행시기를 추정하였다. 원종자로 찍은 책은 「孟子大文」과 「孟子諺解」가 남아있는데, 「孟子諺解」에 1693년의 내사기가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여기고, 시기를 1693년경으로 추정하였다.

목판본 「孟子大全」 2종이 咸興府와 全州府에서 간행되었는데, 2종 모두 11行24字의 판식으로 되어 있는데, 咸興府에서 간행된 것은 卷末에 “咸鏡道觀察使…權縉”과 간행에 참여한 선비들, 刻手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咸興府開刊”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시 관찰사였던 권진이 간행의 주체였음과 함흥부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全州府에서 간행된 것은 跋文에 “全羅觀察使 李慶全…”과 간행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孟子大全」 2종은 판식과 권말에 간행에 관한 跋文을 붙인 것까지 비슷한 체제로 되어 있다. 이 판본들의 저본이 되었던 활자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훈련도감자로 찍은 「孟子集註」는 형태적 특징이 10行17字, 3엽화문어미, 四周雙邊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훈련도감자본 「孟子大文」과 판식이 같은데, 「孟子大文」과 「孟子集註」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여 간행년도를 1627년경으로 추정한다.

17세기 중반에 간행된 <孟子> 판본은 현전하지 않고, 1680년에 성균관에서 重刊한 「孟子集註大全」이 고려대에 소장되어 있다. 이 「孟子集註大全」은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 등 한림원 학사들이 편찬한 明板 「孟子集註大全」의 복각본이다. 무신자로 찍은 「孟子集註大全」(윤증 문중문고 소장본²²⁾)은 1694년의 내사기가 있어서 간행시기를 1694년경으로 추정하였다.

현존하는 판본들 외에 1604년에는 충청·전라·경상의 各道 新刊의 四書·家禮·三經·心經 등을 上送하여 성균관에 藏刊케 하였고,²³⁾ 1665년(顯宗6년)에 함경감사가 용비어천가·오례의·대명률·사서삼경·성리대전 등을 多數 印送하여 本道에 頒布할 것을 청하였고 이에 따랐으며,²⁴⁾ 1684년(肅宗 10년)에 사서삼경과 언해·심경·근사록이 함께 간행되었다는 실록의 기록이 있다.²⁵⁾

(2) 18세기 판본

18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孟子>는 모두 9종으로, 「孟子集註大全」이 6종, 「三經四書正文」이 2종, 「孟子」가 1종 등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서명별로 구분하고, 간행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22) 林英蘭·姜順愛,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31집(2005), pp.345-348.

23) 「宣祖實錄」 卷一八二 三十七年十二月 丁未.

24) 「顯宗實錄」 卷一一, 六年十月 丁巳.

25) 「肅宗實錄」 卷一五, 十年五月十二日 丁丑.

〈표 9〉 18세기에 간행된 漢文本〈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	板心	備考
三經四書正文	後期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初]	雙邊	10/20	上白魚尾	
	壬辰字	芸香閣	1775	單邊	10/18	上二葉花紋	崇禎三乙未芸香閣活印
孟子集註大全	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初]	左右雙邊	10/20	二葉花紋	
	木板本明本覆刻	嶺營	[1745]	雙邊	10/22	二葉花紋	乙丑四月嶺營重刊
	木板本明本覆刻	寧邊府	[1745]	單邊	10/22	二葉花紋	乙丑四月日寧邊府開刊
	戊申字	校書館	[英祖年間]	單邊	10/17	二葉花紋	
	丁酉字	校書館	1793	單邊	10/18	上二葉花紋	上之十八年癸丑新印
	木板本明本覆刻	嶺營	[1798]	雙邊	10/22	二葉花紋	戊午五月嶺營重刊
孟子	木板本	南漢：永寶閣	1754	雙邊	6/17	上二葉花紋	崇禎三甲戌奉教新刊三經四書

18세기는 조선왕조에서 영조·정조가 재위하던 시절로 세종 이후로 26의 문예부흥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간행된 〈孟子〉 판본들 역시 〈論語〉, 〈大學〉, 〈中庸〉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러 종의 금속활자가 새롭게 구조되어 다수의 활자본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 간행되어 현전하는 한문본 〈孟子〉는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이 있는데, 목판본은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2종의 「孟子集註大全」, 영변부에서 간행한 「孟子集註大全」, 남한의 永寶閣에서 간행한 「孟子」가 있고, 금속활자본으로는 後期 芸閣印書體字와 壬辰字로 찍은 「三經四書正文」, 芸閣印書體字, 戊申字와 丁酉字로 찍은 「孟子集註大全」이 있다.

현전하는 판본들을 서명별로 살펴보면, 後期 芸閣印書體字로 찍은 「孟子正文」은 총서 「三經四書正文」 중에 속해 있고, 형태적 특징은 四周雙邊, 10行20字, 上白魚尾 이고, 간행시기는 18세기 初로 추정한다. 임진자로 찍은 「三經四書正文」이 운향각에서 간행되었는데, 규장각 소장본(奎中 566, 569)의 內題紙에는 “尊賢閣 校正 秘書閣 新鑄” 이라고 적혀 있고, “崇禎三乙未芸香閣活印” 라는 간기가 있어, 尊賢閣에서 校正하고, 秘書閣에서 新鑄하여 1775년(영조 51년)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芸閣印書體字로 찍은 「孟子集註大全」은 변란이 좌우쌍변, 상하단변이며, 10行20字, 상하2엽 화문어미로 되어 있고, 간행시기는 18세기 초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판식의 「論語集註大全」(개인 소장)도 현전하고 있다.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목판본 「孟子集註大全」은 “乙丑四月嶺營重刊” 의 간기가 적혀 있고, 영변부에서 간행된 목판본 「孟子集註大全」은 “乙丑四月日寧邊府開刊” 의 간기가 적혀 있는데, 이 2종의 판본은 같은 판식을 가졌고, 명본의 복각본이다. 간행시기는 송일기·정왕근의 논문에 의거하여 1745년으로 추정하였다.²⁶⁾ 무신자로 찍은 「孟子集註大全」이 현

전하는데, 변란이 單邊이고, 활자의 마모가 심해 영조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영조20년(1744년)에는 교서관에 명하여 四書三經·史略·小學 등을 인출케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²⁷⁾ 무신자를 김좌명이 1668년(숙종9년)에 주조하여 거의 100여년 동안 사용하여 낡았기 때문에, 정조는 동궁으로 있을 때 임진자를 주성하게 했고, 즉위 후 정유자를 만들어 다수의 도서를 간인케 하였다. 정조 즉위 후에 1793년에 정유자로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는데, 표지에는 “上之十八年癸丑新印”이라고 적혀 있다. 경상감영에서는 “戊午五月嶺營重刊”이라는 간기를 가진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는데, 이 간기를 가진 「中庸章句大全」과 「大學章句大全」, 「論語集註大全」이 현전하여 <四書>를 동시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판본 6행17字본 「孟子」와 함께 간행된 「周易本義」(奎986)에는 標題紙에 “崇禎三甲戌(1754) 奉教新刊三經四書”, 卷首에는 “上之三十年甲戌(1754)…洪啓禧”라고 적혀 있어서 英祖 30年인 1754년에 四書三經이 함께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가장 자주 간행된<孟子>는 「孟子集註大全」으로, 중앙관서에서 찍은 활자본들은 독자적인 판식을 취하였으나 지방관판본이면서 목판본인 3종은 10행22字의 명본 복각본들이고 판자가 남아 있다.

(3) 19세기 판본

19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孟子>는 모두 8종으로, 서명별로는 「孟子集註大全」 4종, 「孟子」 2종, 「孟子奎壁」, 「孟子正文」 각 1종 등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서명별로 구분하고, 간행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19세기에 간행된 漢文本 <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	板心	備考
孟子集註大全	木板本 (明本覆刻)	豐沛	1807	雙邊	10/22	二葉花紋	歲在丁卯豐沛新刊
	木板本 (丁酉字覆刻)	內閣	1820	單邊	10/18	上二葉花紋	庚辰新刊內閣藏板
	木板本 (丁酉字覆刻)	嶺營	1824	單邊	10/18	上二葉花紋	甲申新刊嶺營藏板
	木板本 (明本覆刻)	嶺營	[1857]	雙邊	10/22	二葉花紋	丁巳正月嶺營重刊
孟子奎壁	木板本	[泰仁]	[1808]	單邊	10/22	無	戊辰夏開刊(禮記)
三經四書正文 (孟子正文)	木板本 (壬辰字覆刻)	內閣	1820	單邊	10/18	上二葉花紋	庚辰新刊內閣藏板
	木板本	武橋	[1874]	單邊	10/22	上二葉花紋	
孟子	再鑄整理字	校書館	[19c末]	單邊	9/17	上黑	監本

26) 송일기·정왕근, 전게서, pp.206-210.

27) 「英祖實錄」, 卷五九 英祖二十年二月乙丑

19세기에 간행된 판본들은 순조 연간(1800-1834년)에 5종이 간행되었으며, 「孟子集註大全」이 4종으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그 전에는 중앙관서와 지방의 감영이나 관청에서 經書가 주로 간행되었는데, 19세기에 들어서서 방각본 간행처인 풍패, 태인, 武橋에서 〈孟子〉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목판본과 활자본이 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목판본은 활자본의 복각본이거나 明本의 복각본이다. 활자본은 整理字로 찍은 「孟子」가 있으며, 그 외 7종은 목판본이다.

서명별로 살펴보면, 1807년에 전라도 풍패에서 목판본 「孟子集註大全」이 간행되었는데, “歲在丁卯豐沛新刊”라는 간기가 있다. 卷首에 “道光庚子(1840년)編”이라는 간기가 있는 「각도책판목록」에서 처음으로 奎州私板 「孟子大全」이 수록되었는데²⁸⁾, 이 「孟子大全」이 풍패에서 간행된 「孟子集註大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묘년은 1807년이 되고, 풍패에서 간행된 이 「孟子集註大全」의 간행시기를 1807년으로 추정하였다. 1820년 內閣에서 「孟子集註大全」이 간행되었는데, “庚辰新刊內閣藏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여기에서 경진년은 1820년(순조20년)을 의미하며, 「孟子集註大全」은 정유자본의 복각본이다. 이로부터 4년 후 경상감영에서는 정유자본의 복각본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는데, “甲申(1824년)新刊嶺營藏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또한 경상감영에서는 명본 복각본의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는데, “丁巳正月嶺營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같은 간기가 있는 「中庸章句大全」과 「論語集註大全」이 현전한다.

내각에서 경진년(1820년)에 간행된 「三經四書正文」은 임진자본의 복각본이며, 내각본 「孟子集註大全」과 같은 간기가 적혀 있다.

태인에서 간행된 「孟子奎壁」과 무교에서 간행한 「孟子」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再鑄 整理字로 찍은 「孟子」(고려대 화산 A9 A3A)가 있는데, 9行17字이며 監本 〈孟子〉를 저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간기가 분명하면서, 제주정리자로 찍은 인본들이 19세기 말에 간행되었으므로, 간행시기를 이에 의거하여 19세기 말로 추정하였다.

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한문본 〈孟子〉는 「孟子集註大全」 5종과 「孟子」 1종이 현전한다. 〈표 11〉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孟子〉판본을 서명별로 구분하고, 간행연도별로 정리하였다.

28) 「각도책판목록(1840년刊)」에는 「四書三經大全」과 그 언해본들이 전주사관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孟子集註大全」은 풍패에서 간행되었고, 그 외는 하경룡장판(1810년)으로 간행되었다.

〈표 11〉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漢文本 <孟子>의 板本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邊欄	行/字	板心	備考
孟子集註大全	木板本(後刷)	在田堂書鋪	1913	單邊	10/18	上二葉花紋	甲申新刊嶺營藏板
	木板本	新舊書林	1913	單邊	12/24	上二葉花紋	
	木板本(後刷)	昌南書館	1916	雙邊	10/22	二葉花紋	歲在丁卯豊沛新刊
	木板本(後刷)	匯東書館	1916	雙邊	10/22	二葉花紋	歲在丁卯豊沛新刊
	木板本(後刷)	光東書局/ 匯東書館	1918	單邊	10/18	上二葉花紋	內閣藏板後刷
孟子	木板本(後刷)	新舊書林	1913	單邊	10/22	上二葉花紋	武橋本 後刷

이 시기의 판본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발생한 방각본의 간행처에서 간행되었는데, <孟子>의 간행처로는 서울지역의 匯東書館, 光東書局, 新舊書林, 전주의 昌南書館, 대구의 在田堂書鋪 등이 있다. 이들은 <孟子>를 간행함에 있어, <論語>, <大學>, <中庸>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목판을 가지고 다시 인출하거나 혹은 새로 판을 새겨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 11〉에서 ‘後刷’라고 표시된 판본들이 전자의 경우이며 ‘木板本’으로 표시된 판본들은 후자인 경우다.

1913년에 대구의 재진당서포에서는 10행18字的 판식을 가진 정유자 복각본계열의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고, 新舊書林은 같은 해에 12행24字의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는데, 이 판본은 새로 판을 새긴 목판본이다. 1916년에는 전주의 昌南書館과 서울의 匯東書館에서는 풍패본의 후쇄본인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다. 또한 1918년에 서울의 光東書局과 匯東書館에서는 동시에 內閣藏板의 후쇄본인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하였는데, 10행18字 판식의 정유자복각본계열이다. 新舊書林은 1913년에 「孟子」도 간행하였는데, 이는 무교본의 후쇄본이다.

이상으로 시기별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한문본 <孟子> 판본들은 주로 임진왜란 이후인 17, 18, 19세기에 간행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17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10종으로, 「孟子大文」이 가장 많았으며, 18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9종으로 「孟子集註大全」이 가장 많았고, 19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8종으로 「孟子集註大全」이 가장 많았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孟子大文」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孟子集註大全」의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Ⅳ. 漢文本 <孟子> 諸板本の 系統

이제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된 漢文本 <孟子> 판본은 송나라 주희의 「孟子集註」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大全本」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孟子集註大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大全本」은 세종조에 명나라로부터 수입한 「四書五經大全」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우리나라

에서 새로 간행된 판본으로, 목판본 종과 활자본 종 등 24종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大全本’을 중심으로 목판본과 활자본을 구분하여 그 주요한 계통을 형성한 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木板本 系統

목판본 「孟子集註大全」 중 10행22 자의 판식을 가진 판본들은 형태적으로 永樂板 「四書五經大全」을 복각하거나, 복각을 거듭한 ‘명본복각본’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명본복각’ 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목판본 「孟子集註大全」은 12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明本 系統의 “孟子集註大全” 板本

板種	刊行處	刊行年	板式의 特徵			備考
			邊欄	行字數	魚尾	
明本 覆刻系	미상	[壬亂以前]	雙邊	10/22	黑口, 黑	
	成均館	1686	雙邊	10/22	二葉花紋	丙寅四月日成均館重刊
	泰東書舍	미상	雙邊	10/22	二葉花紋	
	嶺營	[1745]	雙邊	10/22	二葉花紋	乙丑四月嶺營重刊
	미상	미상	雙邊	10/22	二葉花紋	
	寧邊府	[1745]	單邊	10/22	二葉花紋	乙丑四月日寧邊府開刊
	嶺營	[1798]	雙邊	10/22	二葉花紋	戊午五月嶺營重刊
	豊沛	1807	雙邊	10/22	二葉花紋	歲在丁卯豊沛新刊
	嶺營	[1857]	雙邊	10/22	二葉花紋	丁巳正月嶺營重刊
	미상	미상	雙邊	10/22	上二葉花紋	
	昌南書館	1916	雙邊	10/22	二葉花紋	歲在丁卯豊沛新刊(후쇄)
匯東書館	1916	雙邊	10/22	二葉花紋	歲在丁卯豊沛新刊	

명나라 成祖 永樂年間(1403~1424)에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의 형태적 특징은 10행22자이며, 註가 雙行으로 되어 있고, 판심의 어미는 黑口와 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 구두점이 표시되어 있다.²⁹⁾

조선에서 간행된 명본복각본은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초부터 임진왜란 직후에 간행된 판본들은 명본의 형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두점과 내향흑어미를 가지고 있는 판본들(고려대 만송 A9 A1R)이 이에 해당한다. 1686년의 내사기가 있는 성균관본은 마모된 판의 모습을 보여주나 구두점이 보인다. 그 후 복각을 거듭함에 따라 마모된 판이 많이 나타나고, 구두점도 없어지면서, 內向二葉花紋魚尾로 고정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孟子集

29) 永樂板 「孟子集註大全」(明本)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古貴古 1-34-11)
형태적 특징은 半廓: 25.6×17.6, 四周雙邊 10行22字, 흑구, 흑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註大全」이 명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복각이 거듭되면서 명본의 형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판본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명본복각계열을 이루고 있는 판본들의 간행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강원도 원주에서 복각되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판식의 특징에 의거하여 16세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판본이 1종이 있으며, 17세기에 成均館에서 간행되었으며, 그 후에 영변부, 경상감영 등에서 간행되었고, 19세기에 전주의 방각본 간행처인 풍패에서 간행되었고, 1916년에 풍패본의 후쇄본이 전주의 昌南書館과 경성의 匯東書館에서에서 간행되었다. 판본의 대부분이 지방관판본임을 알 수 있다.

2. 活字本 系統

조선시대에 주성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과 활자본의 복각으로 이루어진 「孟子集註大全」 판본은 모두 10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활자로 인출한 것은 6종이며, 나머지 4종은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하거나 복각본의 후쇄본인 목판본들이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孟子集註大全」 판본들은 행자수가 갑인자와 무신자는 1(행 17자이며(2종), 정유자는 10행18자, 후기운각인서체자는 10행20자, 그리고 목활자는 10행22자이다.

또한 이들 활자본 및 그 복각본들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孟子集註大全」과 동일한데, 이는 조선에서 만든 활자로 찍었을 뿐 영락판 「孟子集註大全」을 底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활자는 갑인자, 무신자, 정유자, 후기운각인서체자, 목활자 등 모두 5종의 활자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丁酉字本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 계통을 이루고 있는 판본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3〉 活字本에서 系統을 이루고 있는 “孟子集註大全” 板本

板種의 系統	刊行年	刊行處	板式의 特徵			備考	
			邊欄	半郭	行/字		
原刊本	丁酉字	1793	校書館	單邊	24.8×16.8	10/18	上之十八年癸丑新印
重刊本	丁酉字 覆刻本	1820	內閣	單邊	24.5×18.4	10/18	庚辰新刊內閣藏板.
	覆刻本의 後刷本	1824	慶尙監營	單邊	23.6×16.6	10/18	甲申新刊嶺營藏板
		1913	在田堂書鋪	單邊	23.3×17.8	10/18	嶺營本の 후쇄
		1918	匯東書館 光東書局	單邊	24.3×17.0	10/18	內閣本 後刷

정유자본 「孟子集註大全」은 1793년에 교서관에서 처음 활자로 인쇄된 후 1820년에 內閣에서, 1824년에 경상감영에서 복각되었으며, 1913년에 대구의 재전당서포에서는 ‘무자신간영영장판(戊

子新刊嶺營藏板)의 간기가 있는 嶺營本(1824년)의 책판을 이용하여 재차 간행하였고, 1918년에는 경성에 있는 匯東書館에서 1820년에 내각에서 「孟子集註大全」을 간행할 때 사용했던 책판을 이용하여 후에 다시 간행하였다. 즉, 1793년에 간행된 정유자본을 저본으로 2번의 복각이 이루어졌으며, 그 복각본들의 후쇄본이 방각본 간행처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孟子〉 판본인 「孟子集註大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孟子集註大全」은 명본계통과 활자본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본복각본’들은 형태적으로 10행22자의 판식이며, 복각이 거듭되면서, 구두점의 유무와 어미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孟子集註大全」은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지방관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孟子集註大全」 판본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孟子集註大全」과 동일한데, 이 중에서 정유자본이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V. 結 論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孟子〉의 제판본을 대상으로, 간행시기별 분석과 간행지역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가장 많은 중수가 간행된 「孟子集註大全」의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그 판본의 형성계통을 밝혀 보았다. 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책판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문본 〈孟子〉은 총 20개 지역에서 모두 5종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도 많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孟子〉책판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판목록상의 기록으로는 호남과 영남지역이 가장 많은 곳에서 〈孟子〉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현존하는 실물은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 현존하는 漢文本 〈孟子〉은 서명별로 「孟子」, 「孟子集註」, 「孟子集註大全」, 「孟子奎壁」, 「孟子大全」, 「孟子大文」, 「孟子正文」 등 7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동일 서명 하에서도 판본이 다른 것들을 구분하면 총 48종이 현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한문본 〈孟子〉 판본의 간행지역을 경기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북한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하게 〈孟子〉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판본의 대부분은 출판을 담당하던 중앙관서에서 인출되었고,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시기별 구분을 통해서, 현존하는

한문본 <孟子> 판본들은 주로 17, 18, 19세기에 간행된 것들이 많다. 17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10종으로, 「孟子大文」이 가장 많았으며, 18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9종으로 「孟子集註大全」이 가장 많았고, 19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8종으로 「孟子集註大全」이 가장 많았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孟子大文」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孟子集註大全」의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孟子> 판본은 주희의 「孟子集註」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孟子集註大全」을 底本으로 간행된 판본들이다. 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는 판본으로서, 크게 明本系統 活字本系統으로 구분되었다.

‘명본복각본’들은 형태적으로 10행22자의 판식이며 복각이 거듭되면서 구두점의 유무와 어미의 변화가 나타났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孟子集註大全」 판본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孟子集註大全」과 동일한데, 이 중에서 정유자본이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이상에서 조사 연구한 여러 판본들의 간기를 추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자료들을 보충하여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누락된 판본들은 새로 발견되는대로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74).
 유탁일. 嶺南地方 出版文化論攷(부산: 세종출판사, 2001).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서울: 보경문화사, 1995).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2. 논문

- 김치우. “嶺南冊板記 所載 刊本の 分類別 傾向.”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남권희. “濟州道 刊行의 書籍 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청주고인쇄박물관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 송정숙. “韓國에서 「孟子集註」의 수용과 전개양상.”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언해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6집(2003).
- 옥영정.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 임영란·강순애,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31집(2005).
- 송일기·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漢文本 〈大學〉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2005, 6).
-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中庸〉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에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의 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9.
-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行 廣布.” 東方學志, 제63집(1989).
- 조정화. “조선조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 研究, 제2집(1987).